한끼100원나눔운동 10년

Small Talk

한끼100원나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방향을 위한 'small talk'

2018.5.25(금)
시간 **15:00~17:00**
장소 **대철회관 1층**
대상 **패널 5~6명과 교구민**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머리말

천주교 대전교구는 지난 2008년 설정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삶 속에서 구체적 이웃 사랑의 실천하자'는 취지로 한끼100원나눔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0년을 맞이하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는 2018년 5월 25일(금) 오후 3시,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에 소재한 대철회관에서 스몰 토크(Samll Talk)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나눔운동 10년을 맞이하여 진행 중인 다음의 사업 중 한가지이다.

- **Newsletter**
  10년 기념 소식지 | 1월~12월(홀수달)
- **Interview**
  10년 기념 100인의 인터뷰 | 5월~8월
- **Small Talk**
  한끼100원나눔운동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small talk' | 5.25.(금) 15시 대철회관
- **Mass**
  감사미사 | 11.17.(토) 15시, 괴정동 KT연수원

행사 순서

- 14:00~15:00 환영 ..... 임미선
- 15:00~15:30 시작 ..... 강절로
  - 전담사제 인사, 시작기도 ..... 박제준 신부
  - 단체사진 촬영 ..... 전체
  - 막간공연 ..... 서은덕
  - 10년 돌아보기 ..... 이진희 본부장
- **15:30~16:50 Small Talk ..... 사회. 이진희 본부장 사회**
- 16:50~17:00 마무리 퍼포먼스, 마침기도 ..... 정구화, 강절로

※ 실제 행사는 예정보다 늦어진 5시 38분에 끝났음. 이에 마무리퍼포먼스를 생략하고, 박제준 신부가 마침인사를 했음.

보고서 목차

- 행사 사진 2
- 기록 요약 8
- 전체 기록 15

행사 사진

2018.5.25.(금) 대철회관 1층

대철회관 1층 회의장 입구에 전시된 한끼100원 나눔운동본부의 각종 홍보물과 자료들.
특히 한끼100원을 위한 첫 모금통에는 유흥식 주교님의 사진을 넣었다.

오후 3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전담사제 박제준 토마신부는 주님의 기도로 행사를 개막한 뒤 인사말을 하면서,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를 함께 지지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부님 우측에 보이는 이는 행사 사회를 맡은 본부 직원 강절로 형제님이다.

오후 3시 05분, 스몰 토크 행사를 위해 대철회관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모든 이들은 처음에는 단정한 자세로, 두 번째는 환하게 손을 흔들며 즐겁게 사진 촬영에 임했다.

오후 3시 11분, 문화기획자 서은덕 미카엘라 자매님(구석으로부터)의 아코디언 연주 공연이 있었다.

오후 3시 22분, 이진희 본부장님의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오후 3시 36분, 가장 먼저 오만진 충남대 명예교수님의 발표가 있었고, 3시 48분에는 오른쪽에 자리한 남 수산나 수녀님(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성모의 마을 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오후 3시 54분, 금융복지상담사 조동신 형제님의 금융복지운동 사례발표가 있었다. 최해경 교수님(충남대 사회복지학과)은 여러 명의 다음 차례에 이어서 4시 08분에 마이크를 잡았고, 김선미(언론인)은 4시 16분에 뒤이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처음 사진은 유창연 사도요한 신부님(장애인 사목부)의 질문장면(4시 26분)이고, 중간 사진은 신동혁 부장님(대전교구 사회사목국)의 발언 모습(4시28분)이다. 4시 35분 이명주 루시아 회장님(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은 한끼100원나눔운동 참여사례를 공유하였다.

2018년 5월 25일(금) 오후 3시, 대철회관 1층 회의장에서 시작된 스몰토크는 예정된 5시를 훌쩍 뛰어넘어 오후 5시 38분에 끝났다. 사진은 스몰토크가 진행되는 모습. 평등한 참여를 위해 'ㅁ'자로 배치했다.

오후 5시 30분, 대전교구 사회사목국장 나봉균 신부님이 스몰 토크에 대한 총평을 하는 중이다.
이 총평을 끝으로 행사는 5시38분경 끝났다.

요 약

2018년 5월 25일 오후 3시~ (※ 기록의 편의를 위해 존칭은 생략합니다.)

패널	오만진 아가비토	·····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Sr. 남 수산나	·····	성모의 마을 원장
	조동신 미카엘	·····	금융복지상담사
	최해경 안나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선미 에디타	·····	언론인
공연	서은덕 미카엘라	·····	문화기획자
내용정리	이주현 사도요한	·····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오후 3:00 강절로(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행사 시작 사회

오후 3:00 박제준 토마(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전담사제) 주님의 기도와 인사말

오후 3:05 단체사진 촬영

오후 3:11 막간공연 | 문화기획자 서은덕 미카엘라

문화기획자 서은덕 미카엘라의 아코디언 연주 공연

※ 대전시 중구 대흥동 골목에서 [구석으로부터]라는 복합문화공간 운영

오후 3:22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소개 프리젠테이션

오후 3:32 스몰토크 시작

스몰토크는 집담회의 취지를 살려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화참여를 위해 'ㅁ'를 연속적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했다. 다만 패널로 참여한 5명의 간단한 주제발표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후 3:34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함.

오후 3:36 오만진(충남대 명예교수)

2008년 교구설정 60주년 준비위원을 하면서 시작한 나눔운동에 대해 소개

- 한끼에 100원씩 하루에 세 번 마음을 두고,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이웃을 위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는가! – 교구장님이 정한 방향
- (아쉬운 점)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금액은 비슷함 - 한 달에 5천에서 6천만원
- 10년간의 성과
  ① 시스템의 완전한 확립 - 국내지원, 대북지원, 해외지원 등 체계적 구축
  ② 금융지원사업 까지 확장 시도에 긍정적 의견 제시
- 향후 과제
  ① 지원확대를 위해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
  ② 다시 한 번 불을 붙여서 근본정신에 맞도록 확산 지속시키자는 바람이 있음.

오후 3:48 남 수산나 수녀(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성모의 마을 원장)

성모의 마을 지원받은 사례 소개 – 지원사업의 성과

- 중증장애인들이 절실히 소망하는 꿈의 실현 – '생애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것
  ① 웨딩촬영의 사례 "나는 로얄 임종수다."
  ② 고향 집 방문 사례 - 입소 후 17년 만의 귀향
  ③ [계획] 진도여행, 여수밤바다 여행 등
- 사업진행 시 어려운 점 – 중증장애인 1인 당 3명의 지원인력 필요
  (2명의 지원인력으로 어려웠음)

오후 3:54 조동신(금융복지상담사)

금융복지상담 사례 공유 – 신규사업의 성과 발표. "금융복지상담이 왜 필요한가?"

- 금융복지 상담 내담자 사례 소개 - 금융복지상담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① 내담자 51세의 여성, 한 부모 가정의 가장, 중3 아들과 단 둘이 생활
  ② [생활환경] 조건부 수급으로 생계급여 받는 중, 유성구 자활센터 자활근로 중, LH임대주택에서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8만원으로 거주중
  ③ [방문목적] 본인 부채 문제로 고통 중. 총 채무금액 2천만원(카드 7개 빚)
  수입은 유성구 자활 월 85만원이 전부 – 그 돈으로 아들과 생활하며 빚도 갚아나가는 상황

- 상담의 실제 사례
  ① [2017년] 12/11, 12/20, 12/27 세차례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선택하도록 상담
  ② [2018년] 1/22 법률구조공단 파산상담, 4/4 대전지방법원 파산 접수, 5/2 파산선고
  ③ 향후 최종면책 결정 받을 예정임

- 6개월간 상담의 성과
  ① 재무적 측면에서 부채 약 2천만 원을 사실상 면책
  ②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파산사건 처리비용 무료진행(최소 150만원)
  ③ [중요] 심리적 해방감 - 빚 독촉의 두려움 해소
  ④ [가장 중요] 아들과의 행복한 가족생활과 미래계획이 가능해짐

오후 4:08 최해경(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끼100원나눔운동의 배분공모 사업 등에 대해 소개

- 한끼100원 연간 모금액 6억 원 규모에서 진행하는 배분공모사업의 성격과 의미
  – 제한된 자원의 한계에 따른 선별적 선정

오후 4:16 김선미(언론인)

청년빈곤 문제에 대한 가톨릭 복지의 적극적 개입 필요

- 가톨릭사회복지 만이 가진 차별화된 '킬러 컨텐츠'의 필요성 제안
  ① 가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 특히 청년 문제에 눈을 돌려야.
  ② 청년빈곤문제,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③ 홀로 사는 문제, 혼자 먹는 문제 등 - 빈곤율이 (부모와 사는 경우보다) 더 높음
- 청년 빈곤에 대한 멘토 역할이 필요함
  ① 먹는다는 것은 공동생활 속에서만 정당한 의미를 지님
  ② 나눈다는 건 물리적 허기만 때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며 정서적인 것까지 제공하는 것
  ③ 교회가 밥과 집을 통해 가난과 고립으로부터 청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 필요

오후 4:24 패널(5명) 발표 종료

다섯명의 준비된 발표(3명의 주제발표와 2명의 사례발표)가 끝났다.

오후 4:26 유창연 사도요한 신부(대전교구 장애인사목부 전담)

2가지 질문

- [첫 번째] 넓어진 정신에 대한 정확한 비전의 제시 필요
  ① 단, 운동본부의 정신이 많이 넓어진 것(금융복지상담 등으로)은 긍정적임.
  ② 장애인사목부의 쌀급식 지원 배분공모 탈락의 아쉬움 언급
- [두 번째] CMS 후원 방식 도입을 통한 효과에 대한 의문

오후 4:28 신동혁(대전교구 사회사목국 부장)

한끼100원 나눔운동본부를 최초로 시작한 담당자의 소회 발표

- 본당신부의 전보발령에 따라 본당별 모금 상황이 바뀌는 사례소개
- 종이 저금통을 만들게 된 사연 공유 등
-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해야 사업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공할 수 있음.
- 저금통 사업을 일반 초중고교 등으로 확산하는 고민이 필요 – '가톨릭' 명칭을 뺀다면.
  ※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저금통이 초중고교에 유통되고 있는 현실

오후 4:35 이명주 루시아(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끼100원 모금을 위한 탄방동 성당의 적극적 참여 사례 공유

- 매월 마지막 주를 한끼100원 회수날로 지정
- 분과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① 종이저금통 100원짜리 대신 지폐를 넣을 수 있는 지폐저금봉투도 마련
  ② 마지막 주에 나와서 주보에 종이저금통 간지에 끼워넣기 작업
  ③ 미사 후에는 회수작업 및 금액을 집계 및 본당보고 후, 본부로 바로 입금

오후 4:41 여경순(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원받은 사업 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 한끼100원 나눔 통해서 영양가 있는 밑반찬 지원에 대해 감사
- 여타 배분기관들과의 비슷한 사업 추구는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여전히 빈곤한 지역이 존재하며, 여전히 한끼를 기다리는 지역이 있음

오후 4:47 이경미 아나스타시아 수녀(서천군노인복지관장)

지원받은 사업 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 한끼100원 나눔 통해서 노인 급식제공으로 마을의 잔치분위기 형성 사례공유
- 지원을 통해 웰빙과 웰다잉 등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가
- 교구 전 신자들에게 한끼100원의 돈이 쓰이는 현황을 잘 전파하는 게 중요함

오후 4:54 강영희(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 글 낭독 by 사회자 이진희

5년 정도 미래를 향한 대안적 투자 시도를 제안

- 마을에 동네부엌을 마련
  ① 밥한끼 먹기 힘든 노인, 방과후 맞벌이 부부 아이들 대상
  ② 집밥 먹듯 편히 와서 먹고 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기도 하는 장소
- 5년 후에 이런 동네부엌이 마을마다 생긴다는 걸 상상한다면?
  ① 다양한 명칭으로 '남이 해주는 방상', '어쩌다 집밥', '누구나 집밥'
  ② 이웃을 초대하고, 이웃을 만들고, 서로의 밥상을 얘기하고, 밥상을 열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 그 의미를 리뷰하고, 얘기하면서 학습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밥상에 다른 이를 초대하는 것
  ③ 밥상을 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
  ④ 이를 위한 미래투자형 지원이 필요함

오후 4:58 임향이(대전자모원장)

지원받은 사업 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 태교육아일기 지원을 통한 미혼모 지원사업의 성공적 진행
  ① 심리적 배고픔에 대한 성공적 지원사례임
  ② 태교 육아일기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결정에서 양육결정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음.
- 건의사항
  ①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② 이를 위해 빡빡한 지원형식을 탈피해줄 것을 제안함
  (예: 기능보강이나 1회성 사업을 제한하는 공모방식에서 탈피)

오후 5:05 김현주 안나(장애인 보호작업장 '느루' 원장)

금융복지상담사 2기 과정 교육생의 경험 공유

- 금융복지상담의 취지 '빚에서 빛으로'는 진정한 복지사업임

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딱 적합한 교육이며,
② 한끼100원나눔사업에 접목시킨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건의사항
① 청년지원사업에 '장애인 청년'을 포함시켜야 함.

오후 5:09 허웅 프란치스코 신부(전,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한올(Khan-Uul) 성당 주임)

몽골 선교시기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표현

- 때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대접을 받는 느낌을 받게 하여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음
① 숫자에 집착(1인당 100원 지원 식)하지 말아야 함
② 현지에서 일하는 신부들을 믿고 도와주는 한끼100원 모든 가족에게 감사를 드림

오후 5:14 김명희 세실리아(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장)

장발장 은행과 같은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오후 5:18 최해경(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참여자로 나온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함

- 유창연 신부의 장애인사목부 지원탈락 등에 대한 답변
① 장애인사목부에 대한 쌀 지원의 경우, '프로그램 지원 성격'의 사업과 다름.
② 혼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 검토하면서 배분공모보다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걸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바 있음.
- 임향이 국장 건의 등에 대한 답변
① 정말 필요한 데 1회성이란 이유만으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하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음.
② 한끼100원에서 작은 규모로 인력도 안되고, 정부보조금도 없이 열악한 곳 지원하는 게 더 맞다는 제안에 공감함
③ 한끼 100원의 성격에 대한 제안에 동의함. 실제로도 공동모금회 등의 심사와 다르게 진행됨.
④ 다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해결해가야 할 것임

오후 5:22 오만진(충남대 명예교수)

유창연 신부의 질문 중 첫 번째 CMS 모금방식에 대해 답변을 함

- 매 끼니마다 100원씩 저금통에 넣는 방식에 대해서

① 이론적으로 정신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하기에는 잘 맞지 않음
② 다만,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함.

오후 5:28 김선미(언론인)

청년 빈곤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재차 강조함

- 청년빈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① 청년빈곤은 중장년 빈곤으로 이어지고, 계층사다리를 탈 수 없어짐
  ② 즉, 그것은 생애빈곤으로 고착되므로, 사회출발선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청년빈곤에 주목하며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함
  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며 청년빈곤에 대한 미래를 대비하는 투 트랙 운영이 필요함.

오후 5:30 나봉균 신부(사회사목국장)

나봉균 신부가 스몰토크에 대한 총평에 가까운 발언을 함

- 주교님은 사목방문시에 사회사목국장을 "한끼100원도 책임지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할까
  ①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음. – 본당에서 늘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배경임.
  ② 이는 주교와 사제단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맥락임
  ③ 주교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가고 모금액도 유지될 것임
  ④ 다만, 이제 지역사회에서 모금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봄.
- 배분에 대한 평가
  ① 사회복지 기존의 시설들도 중요하지만 본당과의 연계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임
  ② 부자본당에서 가난한 본당으로 흘러가는 창구역할을 제안
- 운동본부에 대한 평가
  ①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좋겠음. – 굵은 한방. 뭔가 한방
  ② 한끼100원은 매우 교회적이고 가장 가톨릭사회복지적인 까리타스 정신 구현하는 곳
- 기타 의견
  ① 소외된 청년들의 경우, 주교님과 담판 짓고. 전담신부님이 진행하길 제안
  ② 밥차는 한계성은 분명히 있지만, 홍보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완하길 제안

오후 5:37 박제준 신부(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전담사제)

마지막 인사

5:38 종료

자세한 행사기록

2018년 5월 25일 오후 3시~ (※ 기록의 편의를 위해 존칭은 생략합니다.)

오후 3:00 강절로(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강절로는 행사를 시작하는 사회를 맡았다. 오후 3시가 되자, 다음과 같이 시작을 알렸다.
"시작에 앞서 전담신부님 모시고 인사말씀과 시작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후 3:00 박제준 토마(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전담사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전담사제 박제준 토마신부는 주님의 기도로 행사를 개막한 뒤 인사말을 했다. 참석자 모두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쳤다.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후 3:02 박제준 토마(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전담사제)

안녕하세요. 저는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전담 맡고 있는 박제준 신부이고요.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어제 북미정상회담 취소 뉴스를 보고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이실 것 같은 데요. 워낙 변화무쌍한 현실이니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한끼 100원 10주년 기념 작은 토크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가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를 함께 지지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단협회장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교회 안의 사회복지단체에서, 본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자유롭게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신일여고 김진희 선생님, 대전여고 이연화 선생님 계신가요? 낯서신 분들. 반갑습니다. (좌중 박수 짝짝짝) 그런데 신일여고 선생님께서는 먼저 가셨어요. 대전여고 선생님은 가시지 말고 들어봐 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화: 작은 목소리 "네.").

오후 3:05 단체사진 촬영

참석자 모두가 무대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을 했다. (3:10 종료)

오후 3:11 막간공연 | 문화기획자 서은덕 미카엘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골목에서 [구석으로부터]라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중인 문화기획자 서은덕 미카엘라의 아코디언 연주 공연이 있었다. 다음은 서은덕의 발언이다.

스몰토크라고, 5~6명이 참여한다고 왔는데, 제가 바보인가 봐요. 이렇게 많이 오신 줄 모르고 미쳤나 봐요. 제가 왜 한다고 했는지…. 저는 서은덕 미카엘라라고 하고요. 대흥동 성당에 등록되어 있고, 중앙시장성당에 나갑니다. 저는 취미로 아코디언을 해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10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오후 3:13 아코디언 연주가 시작되었다.

오후 3:15 앵콜이 나왔다. 서은덕이 말했다.
연습을 너무 안 해서. 그런데 얼마 전 결혼식에서 축하를 해줬어요. '축하합니다.'란 성가가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안 하겠고요. 프랑스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오후 3:18 두 번째 곡 연주가 끝났다. 서은덕이 말했다.
사실 아코디언은 뽕짝이 잘 맞아요. 대전부르스 (좌중 반응 좋음. 특히 박제준 "우~하하~")
마지막 곡이에요. (좌중 누군가 "앵콜 할 줄 몰라요." 앵콜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

오후 3:20 세 번째 곡 '대전부르스' 연주 종료

오후 3:20 사회자 강절로(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인쇄거리에서 [구석으로부터]라는 작은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서은덕 미카엘라 님에게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론에서 제일 집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진희 본부장님 모시고, 10년 동안 한끼100원 나눔운동본부 가 걸어온 길 되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후 3:22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시간 관계상 굉장히 간단히 넣었습니다. 2014년에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을 하나 3분 30초짜리 보시겠습니다.

오후 3:22 동영상 시청
오후 3:26 동영상 종료

이진희 발언

2014년에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먼저 사업보고 1.입니다. 2010년부터이고요. 116개 학교 개수 등 ... 해외지원사업도 2010년부터 6개국 지원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대북지원사업은 210/12/14/16/17에 지원했습니다. 나눔밥차사업(밑반찬) 약 600회 정도 자원봉사자는 약 11,040명, 사회복지기관, 본당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역대 신부님들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사업보고 2.입니다. 이후 변경된 것입니다. 국제협력에 지구시민교육을 넣었고 대북지원에 평화교육, 국내지원에 금융복지운동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정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교육실적 등에 대한 슬라이드 내용 낭독

전체로 국내 18억, 국제협력 10억 등 … 국내지원사업은 본당/사회복지기관에 가장 많이 지원되고, 다음은 학교급식비, 그리고 적지만 금융복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금현황에서는 다른 비용으로 들어온 것들 빼고 순수모금운동으로 57억 정도 모였습니다. 연도별로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지만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게끔 본당과 신부님들 애써주시면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2017년 모금현황 본당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부님들 생각이나 신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는 우리교구의 특별한 나눔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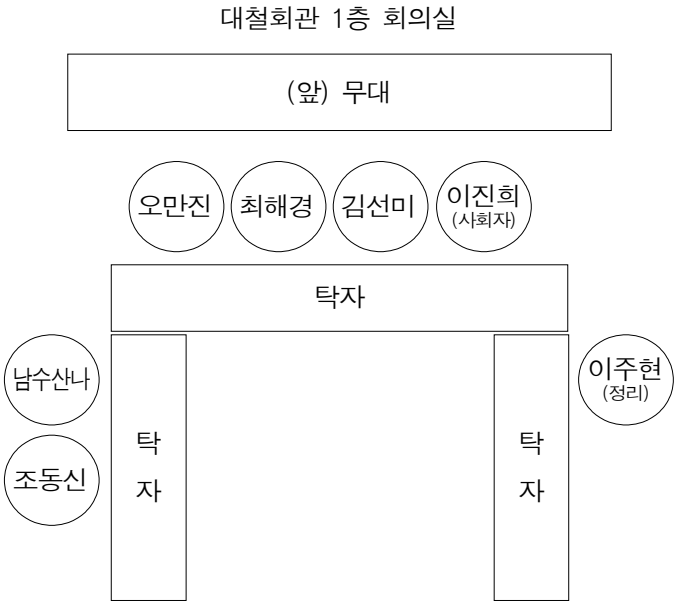
오후 3:31 발표가 끝났고, Small Talk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앞 탁자를 새롭게 배치했다.

오후 3:32 강절로(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강절로는 본격적인 스몰토크를 알렸다.

네. 가장 오래된 직원 강절로입니다. 오늘의 메인 엠씨 이진희 본부장님 다시 불러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넌로 오신 분들도 앞으로 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32 패널 5명과 사회자(이진희)가 준비된 자리에 앉는다.



스몰토크는 집담회의 취지를 살려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화참여를 위해 'ㅁ'를 연속적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했다. 다만 패널로 참여한 5명의 간단한 주제발표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패널과 사회자는 무대를 바라보며 왼쪽부터 오만진(충남대 명예교수, 전 평단협회장), 최해경(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선미(언론인, 전 대전일보 논설실장, 디트뉴스 주필 역임), 사회자 이진희가 나란히 앉았고, 좌측으로 꺾어서 남금숙 수산나 수녀(성모의 마을 원장)와 조동신(금융복지상담사)이 나란히 앉았다.

오후 3:34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한끼100원나눔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진행하는 것은 스몰토크이지만 틀을 조금 갖췄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패널과 두 분의 사례발표자, 이렇게 다섯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 안에 함께 계신 분들 전체가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시면, 그 다음 의견을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 하세요~" 하면 얘기를 안 하셔서요.

오후 3:35 첫 번째로 오만진을 소개함
오만진 교수님은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 교수님께서는 (2008년 대전교구설정)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일상 운동으로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나

누는 1313운동[1]을 10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현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운영위원이십니다. 그동안 지켜보시며 느낀 점과 소감, 그리고 처음의 기대감과 설레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운동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후 3:36 오만진(충남대 명예교수)

오만진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 쪽에 서서 발표를 했다.

저는 소속은 도룡동이고요. 오만진 아가비토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기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게 편해서 제가 편하게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한 달 전 이진희 본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서 '한끼100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대여섯 명 정도가 둘러앉아서,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 제가 "가봐야지요!"라고 답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60주년 준비위원을 했습니다. (2008년 당시) 교구에서 신부님, 수도자, 평신도와 함께 준비위원을 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60주년 기념사업 무얼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 나온 게 백(박?) 신부님 기억하시겠지만, "큰 건물을 짓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나누는 게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태어난 게 1313운동입니다.

한끼에 100원씩 하루에 세 번 마음을 두고,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이웃을 위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는가!"

그게 교구장님이 정한 방향입니다. 모든 준비위원들이 그 계획에 찬동하였고, 그렇게 10년이 되어서 올해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함께 했던 60주년의 준비위원으로서 관심은 굉장히 가지고 있었어요. (대전주보 1면 우측 하단에) 온도계 매번 나오면 얼마나 걷히는가를 보고, 얼마가 참여했는가를 보게 되면요.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10년 걸어오는 동안 전담신부님 양 신부님, 여기 뒤에 계시는데 유 신부님, 또 박 신부님 이렇게 세 분이 전담 맡아 하셨는데, 이런 신부님들 노력과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 본당 봉사자들과 각 본당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금통을 몇 번 씩 모아서 보내주고, 그게 모아진 것이 말하자면, 사랑의 열매로 표시된 것을 보고 대단히 감격스럽게 생각하기도 했고, 이것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대개 10년 전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특징은 대개 한 달에 5천에서 6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도 그렇고, 그런데 대개 어떠한 모금이

1) 1313운동은 '하루(1) 세끼(3) 한끼에(1) 100원씩 삼백원(3)'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1313운동'으로도 불린다.

나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처음에 잘 안되다가 자꾸 불이 붙어서 큰 사업으로 변화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에 5~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끼에 100원씩 해서 한 달에 9천 원해서 계산하면 거의 대개 산술적으로 5천명 내지 6천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반으로 딱 접으면 1만 명 내지 1만2천 명이 하는 겁니다. 또 하루에 100원으로 따지면 한 1만5천 명 정도 되겠지요. 따져본다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23만 명[2]인가요. 그런데 아마 교구장님 생각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베네딕토 교황님[3]에게 가서[4] 우리 교구는 60주년 맞이해서 한 끼 100원 걷어서 어려운 이, 끼니 굶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뒤돌아보면 실제 23만 명이 넘는 신자 중에서 한 달에 그런 참여율 낮은 그런 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은 그나마도 본당 신부님들, 그리고 전담신부님들,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뜻을 가진 신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흥식 대전교구장 주교는 2007년 11월 30일(금) 바티칸을 방문하여 베네딕토 16세(재위 2005.4.24.~2013.2.27.)를 처음으로 개별알현 한 바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진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는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로 학교지원 사업이죠. 또 유창연 신부님이 제가 운영위원 하니까 "밥차를 직접 가보세요."하셔서 제가 천안이나 판암동 그리고 유성도 가봤어요. 봉사하는 곳을 가서 오시는 분들을 보고, 느낌이 다 달라요. 어려운 분들 오시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끼를 주위에서 쉽게 때우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실제 상황이고, 이것이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계속 우리 사회에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어디로 가든 사회에서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실태는 어떻게 보는가?
이제 시스템은 갖추었어요. 완전히 말이죠. 이 (나눠준 소개) 팜플렛을 보면, 국내지원사업, 대북지

2) 2018년 4월 11자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7]에 따르면 대전교구의 신자 수는 32만4천 99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관할 구역인 대전과 충남 전체 인구 3,866,219명 중 약 8.4%에 해당되며, 해당 지역의 인구 12명 중 1명이 가톨릭 신자라는 뜻이다.

3) 한 끼 100원 나눔운동은 대전교구가 교구설정 60주년(2008)을 은혜롭게 보내며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시작한 작은 나눔 실천운동이다.

4) 유흥식 주교는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방문 기간(2007.11.26.~12.3)에 바티칸을 방문했다. 전 세계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방문은 5년마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방문이 이뤄진 2017년 연말에 베네딕토 16세 교황과의 첫 공식 알현이 이루어졌다. 특히 4일간(2007.11.29.~30, 12.1, 12.3)의 개별 알현 기간 중 대전교구 유흥식 교구장 주교는 11월 30일(금) 개별알현을 하고, 다시 12월 3일 공동알현을 한 바 있다.

원사업, 해외지원사업 딱 체계적으로 나누어졌고, 금융지원사업까지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걸 보면 틀은 갖춰놓았는데, 참여율은 그대로니, 그걸 높여야 하고, 쉬운 말로 파이를 키우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발전상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불을 붙여서 근본정신에 맞도록 한끼나눔 운동을 더 지속적으로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한 건 아까 말씀처럼 본부장님이 10년 동안 보았으니까, 아니 본 것도 없어요. 회의를 많이 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전 이런 이유들로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정도로 말문을 열어놓고, 다음 발표를 듣고 서로 토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이해해주시리라 믿고요.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만진의 발표는 오후 3:36에 시작해서 3:46에 끝났다.

오후 3:46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제가 비판적 의견을 먼저 듣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ㅎㅎ …. 오만진 교수님은 언제나 모금과 관련된 내용에 굉장히 채찍을 해주시고, 그래서 늘 각성하고 있고, 올해를 계기로 모금에 더 충실히 확대하면서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조그만 공책들 받으셨죠. 생각나는 것 잘 적으세요. 질문하실 것들 ….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모의 마을[5]에서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중 한가지로 선택했고, 현재 (성모의 마을에서) 진행 중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48 남 수산나 수녀(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성모의 마을 원장)

저의 성모의 마을이 작년에 최해경 교수님께서 지원해보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직원은 그만뒀지만, 정말 우리 가족들 소망하는 것이 '생애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증장애인시설이라서 외부에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것이 집이라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외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걸, 작년에 응모하고 당선되어서 올 해로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들 행복해 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하는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같이 웨딩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대전에서 웨딩촬영을 하는데 장소가 지하였습니다. 지하라서 직원 두 명이 안고 업고 내려가서 했는데, 촬영하면서 옮겨야 할 위치들마다 옮겨줘야 하

5)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모의 마을]은 '성모의 기사 수녀회'가 운영주체로 1992년에 설립되었다. 대표자는 유흥식 라자로 주교, 시설장(원장)은 남금숙 수산나 수녀이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에 위치해있으며, 46명의 직원과 8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족 본인이 뭐라고 자길 소개했냐면, "나는 로얄 임종수다." 이게 너무 행복했던 것이죠. 내가 많이 받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입고 싶던 웨딩드레스를 입고 촬영하면서 엄마에 대한 미안함. 엄마가 많이 울었다고 하며 서로의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정말 행복해서 글을 써서 소식글로 보내드렸습니다.

매달 한번 소식 글 보내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표현을 글로 보며 정말 잘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아쉬운 것은 가족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서 감사하다는 표현 못하는 점에 대해 소식 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끼100원 모아서 주신 돈이지만, '그 돈을 받고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감사한다는 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랬지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장애로 힘들지만, 성모의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할 때 제 마음과 우리 공동체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지 못한 걸 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되게 당황하고 있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나눔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섯 번 남아 있어요. 진도여행, 여수밤바다 보고 싶다고 하니, 처음 입소해서 17년 만에 고향 방문하신 분 소식지에 나왔는데, 집에 가고 싶지만 반겨주시는 분도 없고, 하지만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글을 보내줬는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싶은 걸 지원해준다면 그런 성모의 마을 되었으면 좋겠지만, 진행 어려운 것은 1대 1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운전하는 분, 옆에서 돕는 분 2명만 보내보았더니 너무 힘들어하시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인력을) 3명을 보냅니다. 그렇게 1명을 위해 3명이 움직여야 하는데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소식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남 수산나의 발표는 오후 3:48에 시작해서 3:53에 끝났다.

오후 3:53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식지에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동신 미카엘. 작년 금융복지상담사 1기 나오시고, 우리 본부에 상담소 개소하고 상담 진행 중이십니다.
(조동신이 발표하는) 상담 사례에서 전체 저희가 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사례 진행되는 지 한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54 조동신(금융복지상담사)

저는 탄방동 성당 소속입니다. 작년에 주보에서 금융복지상담사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과정에 입과하고 교육을 받고 지금은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진희) 본부장님께서 사례발표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례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 첫 상담사례이기도 하고,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금융복지상담 필요한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례라 보고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사례자의 인적사항을 소개하면, 51세의 여성이고 한 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중3 아들과 둘이 살아요. 조건부 수급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유성구 자활센터 자활근로 중이시고, LH임대주택에서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8만원으로 거주중이십니다. 허리와 목 디스크를 앓고 계시는 데 딱히 진단결과는 안 나와서 일은 하시지만, 장기간 노동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고요.

처음 오셨을 때 목적을 물어보니까, 본인의 부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총 채무금액을 여쭤보니 삼성카드 외 여섯 건으로 총 2천만 원 정도 채무있다고 하시는데요. 소득은 유성구 자활 월 85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과 생활하며 빚도 갚아나가는 상황인 것이죠.

작년 12월 11일에 처음 상담하면서 전체 부채규모나 본인 자산과 소득과 지출 등을 대략적으로 여쭤보았고, 두 번째 상담은 12월 20일에 있었는데, 과연 채무를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까에 대해서 내담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과 소득 등을 감안하면 2천만 원이란 돈이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큰 돈 아닐 수 있지만, 이 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서 일단 파산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검증과정이 있어서 그런 충족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했고요. 혹시 파산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세 번째 상담에서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았다.
6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데, 주취폭력에 시달렸고, 자녀는 지금 같이 사는 중3 외에 두 명이 더 있었지만, 너무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 결심하고 막내아들만 데리고 나와서 살게된 것입니다. 아무런 위자료 없이 양육비 부담 없이 본인이 다 키우겠다고 선언하고 이혼을 하신 상태인 거죠.

그러다보니 막상 나와서 살아야 할 집이 필요했고, 보증금 250만원을 얻은 것이 부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몇 달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공교롭게 발목골절로 소득단절이 생기면서 부채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생활비로 쓴 카드빚이 점점 더 커지고,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카드 돌려막기도 더 이상 안 되어 현금 대출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제1금융권이 어려우니 제2금융권으로 기대게 되는 경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빚이 늘어나면,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빚이 줄어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고금리에 신용이 하락되고 1금융권과는 더 이상의 거래가 어려운 악순환이 됩니다.

이제까지 어렵게 버티면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연체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억지로 갚아오다가 한계상황에 도달하여서 금년 1월 22일에 둔산동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동행해서 사정 말씀드리고 파산받기 원한다고 말하고, 그쪽 요구하는 여러 서류들 안내 받고, 그 서류들 같이 여러 기관 같이 다니며 같이 떼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대전지방법원 파산 접수하고, 5월 2일 파산선고 등을 받고 최종면책 결정은 다음 달 나올 거로 봅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진행된 상담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이제 상담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내담자 분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하면 재무적 측면에서는 부채 약 2천만 원을 사실상 면책까지 받을 거니까 내지 않아도 되는,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외부에서 변호사 법무사 등 통해서 파산사건 처리하려면 최소한 인지대 등 포함 150만원 드는 사건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 대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했기에 모든 부분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85만원 중 금융비용 30만원 어쩔 수 없이 이자로 나가는 구조였는데, 그 부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연간 360만원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무적인 효과보다는 빚에 허덕이는 것에서 해방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미 너무 지친 상태이고 돌려막기를 한 7개의 (카드) 빚을 계속 갚아야 하는 게 너무 압박이었고 추심원들의 전화나 우편물 하나에도 무섭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며 모든 소비를 카드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카드를 못쓰죠. 그러나 현금 위주로 생활하면서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저희 조언으로 가계부를 쓰며 건전한 소비를 하게 되었다는 게 또 하나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중3 아들과 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보상심리로 아들에게 더 잘해주는 측면과 해달라는 거 더 해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빚이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그걸 못 들어주면서 새로운 갈등 시작되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런 아들과의 갈등을 해소했고, 아이가 이번에 진잠 쪽 공업계 고교 진학했는데, 나중에 자동차 기술 배워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다는 걸 고맙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또 하나의 효과였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적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거웠지만, 이젠 본인 미래 생각하고, 아들과의 여행도 꿈꾸고 있다고 하며 계획적 삶을 살 수 있게 된 부분에 만족하며 고마워하시는 부분에 제가 고맙고 보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사례는 비교적 간단한 사례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사회가 빚에서 고통 받는 이들이 줄어들고 좀 더 살만한 사회로 가는데 우리 센터가 작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조동신의 발표는 오후 3:54에 시작해서 4:06에 끝났다.

오후 4:06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대전 금융복지상담) 센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 사례 하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보고, 금융복지상담사 1기와 2기가 여기 와 계신데, 함께 이 운동을 "빚에서 빛으로" 가는 삶으로 나누는 일에 동참해줬으면 합니다.
이제 국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성모의 마을은 배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복지기관이든 성당모임이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말씀하셨고요. 금융복지 관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지원도 있고요. 국내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또 사업방향에 관련하여 동행해주시는 최해경 교수님께서 의견을 자주 주시지만 다시 의견을 부탁드리고, 본부가 배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의견 청하겠습니다.

오후 4:08 최해경(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고요. 이렇게 앞에서 패널들이 한 말씀씩 돌아가며 하는 거 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알았다고 하고, 벌써 1시간 10분쯤 시간이 경과되었고, 저는 사실 10년의 역사가 있지만, 2015년 후반부에 운영위가 생긴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참여하고 공모사업, 컨설팅 관련 일들 거들면서 잘은 몰라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도 저와 면접했던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공동모금회 배분 일도 관여했지만, 사실은 한끼100원에서 연간 모금액 6억 원 규모 속에서 이렇게 배분공모사업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조금 더 저도 궁금한 점이 있고,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과 관련된 내용, 지역공동체 회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광의(廣義)로 해석하자면, 거기 해당 안 되는 신청건수는 없습니다.

다 넓게 보면 다 해당되지만, 제한된 자원 속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선별적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했을 때 서류보고 면접하면서 공모하는 게 꽤 의미 있겠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준비한 내용이나 또 특히 본당에서 신청하신 서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배분공모 관련해서 본당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본당 사회복지분과나 빈첸시오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 때문인지,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 2개 본당 밖에 지원 안 한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보니 선별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회성이라든지 혹은 기능보강에 해당되는 물건 구입 등이 아닌, 프로그램 쪽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걸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협력 관련해서도 처음 공모를 해보아도 신청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그러면서 오늘 저는 플루어(Floor)무대에서 배분공모 관련해서 신청해보시고 사업 진행해 보시는 담당자 선생님 또는 시설장 선생님들이 한번 좀 우리 한끼100원 본부의 배분공모가 사실 방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복지 영역, 민간복지영역과의 역할분담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부가 가진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아보시는 선생님들이 주는 의견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10주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념 행사하는 것들이 지나온 걸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컨설팅하면서 받은 느낌은 반반이다.

한편으로 의미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지원규모 면이라든지 신청건수 등의 측면에서 보아, 굳이 공모형태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확신이 서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좀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야기 플루어(Floor)에서 나오고 하면,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최해경의 발표는 오후 4:08에 시작해서 4:14에 끝났다.

오후 4:14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지원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 이야기해주면 좋고, 그런 걸 정립하는 과정이니까 비판적 의견도 좋고, 소회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여기와 관련이 없어도, 한끼 본부가 교구 안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상적(理想的) 이야기도 좋습니다.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이 될 텐데요. 그런 걸 다 녹여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서 날카롭게 의견 주신 분으로 교회운동의 동참자로서 사회적 약자나 고통 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4:16 김선미(언론인)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스몰토크라고 하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랜드 토크가 된 것 같습니다. 한끼 100원도 이처럼 한 열 배 아니면 백 배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끼 100원에 대해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누구를 지원하는지 특별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동전이 있으면 모금통에 넣고 하는 정도였는데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끼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운영위원들마다 매우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한끼가 기존의 '사회복지와 무엇이 다른가?'하는 점이 관건이었고 가톨릭 사회복지 안에서 뭔가 차별화된 것, 한끼만 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따랐습니다. 한끼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 비슷한 기부금을 내는 신자들 입장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지요. 이런 가운데 '이걸(한끼)를 확장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끼마저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끼나눔을 확장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사회 속으로 나가보자'는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새로운 사업을 해볼 것인가?

1년에 6억 원 정도 모금이 되는데, 기금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두자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못쓰냐?'는 의견도 나오게 됐습니다. 한끼의 취지와 잘 맞는 '밥차' 같은 경우 확대할 수도 있지만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한끼의 결핍을 낳게 한 '가난'의 문제입니다.
결국 가난을 고착화시키는 빚문제까지 나오며 금융복지사업이 한끼의 새로운 사업으로 확대되었지만 사회복지 그물망에서 청년은 한 번도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청년의 빈곤을 말하면 심한 경우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젊은놈이 할 일이 없냐? 제 밥벌이도 못하느냐?'는 비난을 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 출발부터 빚을 떠안고 가는 구조가 만연해지며 청년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업에서 한꺼번에 뭔가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금융복지사업처럼 한끼나눔을 시작한지 10주년을 맞아 교회가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빈곤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빈곤은 생애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최근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청년빈곤'에 주목하고 있지만 교회도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의 빈곤율은 부모와 사는 청년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거문제는 가난을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청년들의 경우 수익의 절반 가량을 주거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돌아가 편히 쉴 곳이 없다는 것은 생활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아 불안한 청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방과 생활공간이 분리가 안 되는 원룸, 발 뻗기도 힘든 고시텔, 쪽방 등에 거주하며 빚을 안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청년들에게 교회가 작은 쉼터라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진희본부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소속'이 없기 때문에 호칭에 있어 잠시 머뭇거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웃자고 한 이야기이지만 청년들에게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빈곤으로 연결되기 십상인 소속이 없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신분이 아닌가요?

'먹는다는 것은 공동생활 속에서만 정당한 의미를 지니고 음식은 사람을 결속하게 한다' 발터 벤야민의 말인데요. 밥을 나눈다는 것은 물리적 허기만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결핍까지 함께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 같은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끼나눔이 밥과 집을 통해 가난과 고립으로부터 청년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미의 발표는 오후 4:16에 시작해서 4:24에 끝났다.

오후 4:24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다섯 분 이야기 끝냈습니다. 드디어.
저희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 써놓은 것은 10년을 지나오는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내용을 들어보거나 질문을 하실 분들 먼저 손들고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시죠?

유창연 사도요한 신부가 손을 들었다.

오후 4:26 유창연 사도요한 신부[6](대전교구 장애인사목부)

(박제준 토마) 신부님께서 저 이후 맡으셔서 사업도 커지고 매우 감사한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있을 때보다 확실히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의 정신이 많이 넓어져서 그 부분 너무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그 정신에 묶여 있어서, 사업을 크게 넓히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좋아서 첫 번째 질문은 분명 정신이 변하고 넓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면 넓어진 정신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최해경 교수님께서 지원사업에 공모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장애인사목국에서도 쌀급식 지원했다가 짤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노골적으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정신이 변해가고 그 비전이 무엇인가 묻고요.

두 번째는 1년에 본당을 열다섯 군데 돌아다니면서 후원미사를 드려서, 거의 본당들은 다 돌아서 어느 정도 처음 제가 갔을 때 모금액 5억, 제가 떠나면서 6억 올려놨고, 오 교수님 그 당시 주장한 게 CMS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제가 떠나면서 CMS가 생겼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창연의 질문은 오후 4:26에 시작해서 4:28에 끝났다.

---

6) 유창연 사도요한 신부는 2013년 1월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2대 전담신부로 부임하여 2015년 8월까지 활동했다.

오후 4:28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나중에 모아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손들고 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신동혁 부장님!
사회사목국에서 오랫동안 이 일 하셨어요. 원래 강길원 신부님이 처음 이 일 할 때 맡고 계셨던 국장신부님인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회라고, 모금통에 대해서 전 이 아이디어 얼마나 좋았는지, 힘들었던 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4:28 신동혁(대전교구 사회사목국 부장)

2007년에 교구설정 60주년(2008) 기념사업을 사회사목국에서 제안하라고 주교님이 말씀하셔서, 주교님이 원하셨던 게 운동이었습니다. '함께 나눔운동'이었고, 그래서 한끼100원나눔운동이 선택되었습니다. (그걸 처음에) 제안한 직원은 인사이동해서 아무도 할 사람 없어서 제가 맡았어요. 저희 지하강당에서 130개 본당에 발송하는 일을 혼자서 이틀간 했습니다. 그 때 가장 힘들었고요. 또 '모금을 했는데 왜 안 나눠 주냐?'라고 해서 3년 동안 모금운동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새로 오고 '100원'이 발전하는 거 보면서, 처음 시작 6억이고 지금도 6억이에요.

주보 온도계 아시죠. 그거 제가 만들어 올리면서 금액 목표치 10억인데, 항상 60도에 가 있어요. 100도에 맞춰놓았는데, 오늘 여러 의견 주셨는데, 모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당도 늘어나고 신자도 늘어나고, 주변 관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당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보면요.

A라는 본당이 모금에서 1등을 하는데 담당 신부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순위가 죽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진희) 본부장님 오시고, 강절로 제일 오래된 직원같은 분들이 계속 있어야 흐름을 알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끼100원' 만들고 나서 6년 간 직원들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바뀌지 않고 금융복지상담운동까지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합니다.

저금통 종이로 만든 건 회수율 때문이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안 가져온다고 (이진희feat. 환경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또 꽉 차면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9천900원 채우면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든 것에는 주교님 사진 넣었어요. 그러면 못 버린다고 보았거든요.(좌중 웃음)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아무튼 퀄리티가 더욱 높아지고,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해서, 발전하지만, 본당의 경우에 종이저금통을 안 만들고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 미사 때 아이들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굿네이버스 저금통과 월드비전 것을 가져오면 제가 버리라고 한다. 그걸 학교에서 채워 가면 봉사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톨릭 학교들도 동참운동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들하고 연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학교 교감선생님들 찾아뵙고 홍보 부탁드리고 저금통도 말씀드리는데, '가톨릭' (명칭을) 빼고 달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시킬까봐 안 오려고 하는데, (사회사목국장 나봉균) 신부님 온다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신동혁의 소회 발표는 오후 4:28에 시작해서 4:34에 끝났다.

오후 4:34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우선 모금 이야기 나왔고요. (종이)저금통은 환경 생각해서라고 보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리고 실제로 넣어보면 만 원쯤 들어갑니다. 그런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기반이 생겨서 지금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데 사회복지 본당분과 회장님 계시는데, 본당 모금 주축 사회복지분과에서 하는데 회장님 오시니까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본당 내용, 타 본당,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본당이 가장 중요하니 운동 활발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후 4:35 이명주 루시아(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 회장[7])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현재 본당(탄방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주보에 공지된 걸 보니, '개인이 하루 세 번 씩 식사할 때 기도를 봉헌하고 한끼 100원씩 300원 나눔을 봉헌합니다.'인데요. 신 부장님 말씀처럼 작은 저금통에 하루에 300원에서 한 달 9천원 모아지는 걸 가져오는 건데, 그게 자율적이다 보니까 동전이고 하니 어르신들은 무거워서 잊어버려서 안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동전을 보기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서 회수율이 적더군요.

그래서 본당이 크지만 신자 수 비례해서 모금액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보려고 본당 신부님과 의논하니, 그러면 매월 마지막 주를 한끼100원 회수날로 정하고, 종이저금통 100원짜리 대신 지폐를 넣을 수 있는 지폐저금봉투가 있었는데, 유창연 신부님이 (한끼100원) 본부에 있을 때였는데, 강절로 선생님이 팜플렛과 종이봉투 가져와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우리 본당은 한끼100원 나눔 모금액을 모아서 어려운 이 돕는다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서요. 전(前)주에 공지하고, 분과위원들이 마지막 주에 나와서 주보에 종이저금통 간지에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회수해서 마지막 미사 후에는 분과위원들이 맡아요. 본당에 맡기지 않고요. 그 금액을 집계하여, 본당에 말씀드리고, 본부로 바로 입금시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말씀처럼, 본당신부님 관심과 분과장님의 역할과 활동량에 따라 나눔하는 것이 확대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끼100원 사랑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힘든 일에게 지원하는 것을 지금도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확대되길 바라고요. 감사드리고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주의 제안은 오후 4:35에 시작해서 4:39에 끝났다.

7) 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담당 나봉균 신부)는 2018년 1월 21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2018년 본당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교구 내 14개 지구협의회 임원과 96개 본당 사회복지분과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이명주(루시아·대전 탄방동본당)가 제5기 본당협 새 회장에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하느님 계명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카리타스 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교구와 지구, 본당이 일치된 나눔 문화 전개를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신임 이명주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오후 4:39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백현 신부님[8]은 그동안 서열 1~2위를 다투는 본당신부님이신데요. 어떻게 모금활동 잘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준비했는데,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 동참하신 분들, 사업에 지원하셨던 분들, 봉사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목하지 않을테니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수렴하고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금융사업, 밑반찬 사업 하시는 분 등등 다양하게, 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북한동포들이 오셔서 가족문화 체험을 했는데, 하루를 묵은 적이 있습니다. 60가정에서 묵었는데요. 차가 올 때가 되었는데 2시간이 남았고, 60명과 나머지 봉사자 60명 120명인데, 그것보다 더 있는데 이 2시간을 어떻게 때울까에 대해 고민되었어요.그래서 소감을 나누기로 하며 걱정했지만, 봉사자분들은 시킬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북한 동포분들은 60명 모두 손 들고 모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 4:41 여경순(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마을도 10주년이 되었는데요. 배분사업 신청하고 사업 진행하면서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부분 모금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에 밑반찬 독거 재가 장애인 반찬 서비스일이 주1회씩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 연계해서 반찬 이어주지만, 늘 반찬 비슷비슷하고, 늘 김치주거나, 삼겹살 집 등에서 일주일 반찬으로 허접한 것을 받아요. 김치나 짱아치 등, 장애인들의 영양 측면에서 보면 한끼100원 나눔 통해서 영양가 있는 밑반찬 지원해줬으면 해서, 배려해주셔서 사업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졌으면 하는데, 공모사업, 한끼100원이 먹는 것에서 시작한 거 같은데, 그걸 통해서 참여하는 대상자라든지 이용자 등이 무엇이 나아졌는지, 영양이 좋아졌나 조직화가 좋아졌나 이런 걸 물어보니, 공동모금회나 여타 배분기관과 뭐가 다른가? 배분기관들의 사업과 비슷하게 추구하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직화 사업으로 작년 했는데, 저희 지역은 작고 인구도 작은 데요. 요즘 복지허브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는 지역보장협의체를 통해 다른 조직들 참여단위가 서천이 복지상 엄청 잘 받는데, 그걸 모르고 직원이 해보겠다고 했다가 작년 추진하는 걸 보니 잘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헛돈 쓰지 말고, 많은 분들 참여로 소중한 돈인데, 어설프게 할 바에는 무르익지 않은 것 같으니 올곧게 돌려드리면 좋겠다고 하여 반납한 상황이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지역이 다 잘 먹고 잘 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한끼를 기다리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많으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한끼 100원 시작했던 마음으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경과보고 해줄 때 자료가 너무 좋더라고요. 본당 사회복지 위원장님 오셨

8) 백현 바오로 신부. 현 대전 평화방송 사장

는데, 여타 분과장님들 공유 못하실 것 같으니, 주보에 실어서 이렇게 10년 맞이했다고 공유해주면, 주보 온도 보고, 경과들 보지만, 안 보신 분들 매우 많으니, 참여가 5~6천 많게는 1만이라고 했는데, 본당 사회복지 분과 분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확대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옆의 수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여경순의 발언은 오후 4:41에 시작해서 4:47에 끝났다.

오후 4:47 이경미 아나스타시아 수녀(서천군노인복지관장)

저희가 작년에 밥차를 가지고 와서 나눔밥차를 김시권 팀장님이 지역에 열심히 끌고 다니며 밥차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골공동체는 밥차 나눔이 중요해요. 경로당에서 급식 제공하지만, 저희가 나가면 마을은 잔치같은 분위기가 되죠. 부녀회원님이나 봉사자님들이 추가반찬 만들어서 오고, 경로당에서는 잔치가 만들어집니다. 올해는 교육과 같이 나갑니다.

노인의 웰빙과 웰다잉을 연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밥차 사업 지원을 해주시는 한끼100원 나눔 운동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교구에서 주는 법인 전입금이 있어서 예전 총원장 수녀님은 공모사업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구 돈을 받는 기관인데, 우리가 신청하면 다른 기관이 못 받는다고 하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는 상관없는 곳이라 보았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 아쉬운 것은 본당 신자들이 신부님 강요로 돈을 또 내야 하는 가에 대한 점입니다. 사회복지에도 후원금을 내고, 한끼100원에도 후원하는 등 '신자들이 힘든 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특히 서천지역 같은 경우는 신자들이 70~80%가 노인입니이다. 대전교구도 외곽은 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지역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본당 노인을 그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지 그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밥차 나눔을 하지만, 복지관 관내 어르신뿐 만 아니라 경로당과 지역 어르신들을 지역 내에서 잘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경순 서천장애인복지) 관장님께서 사회복지 분과위원들에게 이걸 (이진희 본부장의 본부소개 내용) 나누자고 한 걸 들으면서 생각한 건 신자 분들에게서 나온 돈인데, 어디에 쓰고 어디에 나누는지 피부로 느끼는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그걸 알면 참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한끼100원 나눔에서도 그런 차원 관심 가져주시면 모금활동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경미 수녀의 발언은 오후 4:47에 시작해서 4:51에 끝났다.

오후 4:51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순서 기다리신 분들 말씀해주세요.
한끼100원에서는 수요일 밑반찬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고 밑반찬 만드는 봉사의 경우에, 100인 인터뷰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용전동 본당에서 한 달에 한번 오셔서 밑반찬을 만드는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전에는 60가구 하시는데, 인터뷰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봉사에 만족하지만, 배달부서가 따로 있어서 누구한테 가는건지 어떤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배달하는 분들이 더 만족스럽고 감동스럽지 않은가?"라는 소회를 이야기하는 걸 인터뷰하는 옆에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배분사업과 직접사업이 몇 개 있는데, 사업진행 중의 고민들이 있고요.

만약 안계시면 하나 읽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플루어(Floor)에서 이야기하고, 강영희 도미니카 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님을 패널로 모시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본당 밑반찬 나눈다거나 그럴 때 자주 보시고, 배분공모에도 관심 보이셨고, 그런데 여기 참여를 갑자기 못하게 되어서, 글을 써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읽겠다.

강영희가 보낸 글을 이진희가 대독했다.

오후 4:54 강영희(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 글 낭독 by 사회자 이진희

오늘 10주년 기념토론회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사실 한끼100원 나눔운동본부의 운영위원으로 있으나 아직 본부의 역사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해 온 깊이를 잘 가늠하지 못하고, 교구 안에서의 여러 기관들과 관계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맘에 두고 있었거든요. 참석을 못하니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못하지만, 민망함을 무릅쓰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눔운동본부에서 반찬나눔(또는 밥한끼 나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잠성당에 가보니 새벽부터 봉사자들이 반찬을 준비하고, 나누고, 배달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모습대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는 현상태를 유지할 뿐 대안을 만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라서, 지원을 그만둘 수 있을까? 몇 년 지원하고 형평성 때문에 다른 곳도 지원한다고 하는 게 맞는가? 걱정이 들어오더라구요.

함께 밥을 먹는 일을 5년 정도 미래를 보고 대안을 만드는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마을에 동네부엌이 있어서 밥한끼 먹기 힘든 노인이나, 방과후에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자기집 밥을 먹듯 편히 와서 먹고 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 마을에 곳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일은 지금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 어디에 이런 일을 할 공동체가 있을까? 고민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5년 후 마을마다 이런 동네부엌이 생긴다는 걸 상상하면서 오늘은 '남이 해주는 밥상' 이런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남이 해주는 방상', '어쩌다 집밥', '누구나 집밥' … 이런 이름으로 자기집, 또는 자기사무실에서 직접 한끼 밥상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한끼 먹여주면, 한명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모인 손님 명 수만큼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밥상을 하고 나면, 사진과 후기를 플랫폼에 올리는 거죠. 어찌 보면 가난을 구제하는 밥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웃을 초대하고, 이웃을 만들고, 서로의 밥상을 얘기하고, 밥상을 열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 그 의미를 리뷰하고, 얘기하면서 학습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밥상에 다른 이를 초대하는 것이 편해지고, 마을에 이런 분들이 여럿 모이면 자연스레 '동네밥상'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밥상을 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 중 먼저 맘을 내는 살림이 생기고, 그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혹 더디게 된다 해도, 자기 주변에 사람들에게 우리 집을 열고 밥한끼를 대접하는 문화가 생겨나겠죠.

저는 이런 상상이 늘 즐거워서 쓸데없이 구체적이여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장의 구제와 함께 시혜가 아닌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대상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길게 보고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웃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참여해야 맘이 편할 것 같아 괜히 긴 글 씁니다. 죄송 (낭독: 이진희 사회자)

이진희는 강영희가 보낸 글 대독을 오후 4:54에 시작해서 4:57에 끝냈다.

오후 4:57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박수는 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좌중 박수)

오후 4:58 임향이(대전자모원장)

책임감이 느껴져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교구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 되는 게, 4천여 개 인가 그래요. 그렇게 시설들이 다 참여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진희) 본부장님이 한끼 100원에 오실 즈음인데요. 저는 자모원 차량 지급 관련된 공모에서 자격이 안되었어요. 차량을 받아와야 하고, 나눔운동 본부에서는 '필요한 걸 도와 달라고 하면서 처음 찾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만 해도 방향 설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부장님이 '지금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굉장히 씁쓸히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사업이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서 시작되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차량은 다른 곳에서 지원받았지만, 미혼모 지원사업 중 '태교 육아일기'[9]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나눠주는 게 밥차, 밥에 의한 사업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밥은 먹습니다. 사실 심리적인 배고픔도 저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혼모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서 저희 같은 기관에 들어왔지만, 출산하고 입양이나 양육 결정하는데, 양육엄마도 그렇지만, 일부 입양하는 엄마들의 경우에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게 보면, 일부 엄마들은 애완동물이나 인형 같은 걸로 보는 마음이나, 낳고 입양 보내면 원래 삶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일하는 사람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부모가 키우는 건 좋지만, 보내기 전에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할 방향성 제시해주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교 육아일기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리고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입양결정에서 양육결정으로 바꾸는 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은 계속 해나가겠고 생각해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한끼 100원에서 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런 어려운 심리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부분에서 의미 있다고 보여서 3년동안 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었고, 앞에 센터장님, 수녀님 공통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받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작년부터 사업선정이 까다로운데, 지원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기관들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데 오늘 안 오신 거 같아요.

서운함 때문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사실 소규모 시설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인력에 맞게 페이퍼(신청서 작성 등) 작업하는 것도 어렵고요. 조그만 시설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교구 안에 가톨릭 정신 안에서 공모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빡빡하게 룰을 정하지 말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대변(代辨)을 한다면 그 기관에서는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최해경 교수님 말씀처럼 기능보강이나 1회성을 제한했다고 보지만, 1회성이라도 그 기관 열악하고 이걸 받지 못하면 아예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동모금회에는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가톨릭에서 담아내길 바랍니다.

임향이의 발언은 오후 4:58에 시작해서 5:05에 끝났다.

---

9) 대전자모원은 미혼모자 가족복시시설로 미혼 엄마들의 갑작스런 임신과 출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중한 생명의 울타리'에 맞춘 특성화 사업으로 태교육아일기프로그램 "안녕, 아가야!"를 운영하며, 2016년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진행이 더욱 풍성해졌다. 태교육아일기에 엄마의 일기와 그림, 아기에게 보내는 편지, 주변에서 보는 예쁜 꽃, 풀들도 일기의 재료가 되어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과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들을 표현하여 일기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출처: 대전자모원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들이야기> 2016.5.8.)

오후 5:05 김현주 안나(장애인 보호작업장 '느루' 원장)

임향이 위원장님이 책임감 느껴져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책임감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끼 100원나눔에서 하는 금융복지상담과정을 2기로 듣는데, 처음 그 과정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재무상담을 하나?' '한끼100원과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점점 그 과정 매료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 직원들 중에서 간헐적으로 들은 이들이 어떤 교육이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신용카드 쓰지 말래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육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처음 들은 건 장애인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취업제한, 4대 보험, 은행거래 등 그런 부분 도움 될 게 있나 고민하다 이걸 들었고, 정말 듣길 잘했다는 걸 느끼고, 이 부분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연관이 '한끼'와 있겠나 생각(의심)한다면 '꼭 들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고, "빚에서 빛으로"란 말이 딱 맞고 물고기를 수혜자에게 주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딱 적합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한끼100원나눔에 접목시켜 사업한다면, 100원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통해 100원의 가치를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동전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동전 가치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면 한끼 100원 운동이 확대되지 않을까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모금, 배분사업 중복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사업으로서의 부분들을 확고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청년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요즘 청년들 어렵고, 청년 안에 장애인 청년들이 포함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들 저도 고민할 것이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김현주의 발언은 오후 5:05에 시작해서 5:08에 끝났다.

오후 5:08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한끼100원 (사업)은 본부 직원 5명의 일이 아니고 교구 전체 공동체의 일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면 한 두 분 지목을 하겠습니다. 몽골에 오래 계셨고, (앞서 보여준) 동영상에서 쓰레기장에서 밥을 주는 거였는데,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때 치사했다.' 이런 말씀도 괜찮고요.

오후 5:09 허웅 프란치스코 신부(전,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한올(Khan-Uul) 성당 주임)

몽골에서 한끼100원 지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선교지들 이다보니, 대부분 일들이 가난한 사람들 만나는 사회복지 일이었고, 그 일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돌아온 지는 조금 되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언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외경험으로 보면, 환율차이도 있고, 사업형태는 비슷한데, 빈민지원과 나누는 것인데, 비슷하지만, 현지 상황들이 확인이 안 되면서 현지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교구에서 파견된 신부들이니 전적 믿고 지원해주시지만, 사업형태와 실제적 사용되는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 가끔 있던 거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만일 100원으로 한 명을 먹일 수 있으면, 1천원으로 10명을 먹일 수 있는 건데요. 만일 1천원으로 한 명을 먹이면, 의식적으로 '100원이면 밥 먹을텐데 1천원이나 먹었어?'라는 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대접을 받는 느낌을 받게 하여 더 큰 효과를 볼 때도 있는데, 숫자에 집착하다보면 100만원을 가지고 100원 단위 혹은, 1000원단위로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수혜단위로 일하면 집행자와 도와주는 이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딜레마입니다. 해외의 현지상황들 때문에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들도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느낀 점 말씀드렸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큰 도움을 받았기에 제대로 확인은 영상 몇 개로 되는 것이지만, 현지에서 일하는 신부들을 믿고 도와주는 한끼100원 모든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허웅의 발언은 오후 5:09에 시작해서 5:13에 끝났다.

오후 5:08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그러면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게 되자) 하시겠어요?

오후 5:14 김명희 세실리아(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효광원에서 24년 있다가 다기능으로 온 지 다섯 달이 되었는데요. 효광원 지원사업 지원 후원 잘 받았고, 효광원은 보호자들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 거마비를 줍니다. 부모들이 생계에 너무 어려움 겪어서, 제가 인터뷰를 하러가니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해왔던 똑같은 사업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었고, 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분들에게 교통비라도 드려서 생계에 쪼들려서 그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 도움주고 싶다고요.
그 사업 되어서 진행했고요.

현재 다기능은 무료급식, 밥차 등 그래서 이중 지원받아서 이중적 인간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금년에 오니까 지원 금액이 조금 줄었다고. 3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액수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허허허. 그런데 복지관 안에는 무료급식을 꼭 해야 하는 분들 계시고, 그 분들 무료급식 보조금에서 받는 금액과 1천원 내는 분들 계셔서 1천원 단가로 (식사단가 2,400원 중) 1,400원을 지원해드리고, 거기 아쉬움이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돌팔매 질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지만, 금융복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발장 은행[10]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장발장은 상속 등 빚을 떠안게 되어 교도소에 가게 되거나 하는 걸 도와주는 제도인데, 이자도 없고, 빚을 갚을 수 있을 때 갚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교적 사업이라고 봅니다. 금융복지에서도 그런 쪽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김명희의 발언은 오후 5:14에 시작해서 5:18에 끝났다.

오후 5:18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장발장은 범칙금 못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모아서 (최해경)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후 5:18 최해경(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창연) 신부님 계셔야 하는데, 가셨어요. 전임 신부님이 (지원공모에서) 잘렸다는 이야길 하는 걸 들어서, 아무튼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 정말 배분공모 필요한 건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걸 다 하셨어요.

장애인사목국에서 쌀 사달라고 낸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지원 성격이라서 별도로 지원하는 데 더 맞지, 배분공모는 페이퍼웍(Paperwork)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다르게 의미전달 될 수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저 혼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 검토하면서 배분공모보다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걸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향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데 1회성이란 이유만으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하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한끼100원에서 작은 규모로 인력도 안되고, 정부보조금도 없이 열악한 곳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10) 장발장은행은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힌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무이자와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 2015년 2월 25일 출범한 은행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이 해마다 4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 장발장은행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했다.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이 시대의 장발장들을 위해서다. 홈페이지 http://www.jeanvaljeanbank.com/

한끼100원 성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배분공모라서, 그렇다고 공동 모금회에서 말하는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효광원 서류에 대한 검토에서도 일반적 제안서 받아서 하는 것은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틀이 딱 있어서 실제로는 가족캠프 등 참여가 절실한데 그거 참여하려면 일당 포기하고 와야 되니까, 못 오는 분들을 오히려 지원해서 오시도록 해서 자녀를 챙겨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 공모사업 취지에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피드백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한번 저도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으며, 국내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배분공모의 형태이든 아니든 어찌되었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섭섭한 마음도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해경의 총평은 오후 5:18에 시작해서 5:22에 끝났다.

오후 5:22 오만진(충남대 명예교수)

유창연 신부님이 두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모금방법과 사업영역을 신용사업으로 확장한 배경이랄까? 그건(두 번째 것)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 마침 모금방법을 콕 집어서 ... 제가 답변할 것입니다.

한끼100원 잘 해보려고 노력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매 끼니마다 100원씩 넣는다? 이론적으로 정신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하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교님 뵐 때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주교님도 본인 것과 하느님 것 두 구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좌로 해야지 저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도 못하겠다. 저희 내외하고 아이 있어서 세 구좌를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출발해서 했고, CMS의 모금상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연 신부님이 전담(사제를) 할 때 그 전에 자문위원이란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교황님도 오시는데[11], 그런데 '주교님 이거 월드컵 경기장에 6만 명이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황님한테 CMS 선물 드리는 격으로, 제가 자연과학 전공이니까 '5만 명이 모여? 6만 명이 모여?' 그래서 '한 구좌로 6만 명?' 지금보다 10배 걷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자문 들어보니까, 본당 신부님 등 말씀이 신자들을 너무 괴롭힌다는 겁니다.
한끼 100원나눔 정신에 충실해야지, '신자들 부담 주는 거 아닌가?'하는 것이죠. 신자들 헤아리는 신부님 마음으로 그걸 집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답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CMS가) 무지하게 편하게 해준 겁니다. 매끼마다 저금통 신경 쓸 일 없고, 내

11)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교황은 14일 공항 도착 때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보듬으며, 사랑과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 사회에 깊은 감동과 치유의 순간을 제공했다. 특히 방한 이틀째인 15일에는 헬기도 아니고 특별편성도 아닌 일반 KTX를 이용해서 대전을 방문했다. 당시 교황은 오전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후 첫 대중미사인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또 미사를 집전하기 전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과 유가족 10명을 만나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15일 오후에는 세종시 대전가톨릭대에서 아시아 청년들과 오찬을 한 뒤 헬기를 타고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 당진 솔뫼성지로 이동했다.

뜻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고, 그래서 CMS를 주장했는데, (유창연) 신부님 질문에 대해 서로 공방하려는 건 아니고, "CMS하고 나서 얼마 돈이 늘었습니까?"라고 유 신부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5억 내지 1년 6억이라고 CMS 하기 전후를 보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CMS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10배도 올릴 수 있지만, "그냥 CMS 하쇼!"라고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강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자들에게 부담이 돼서 (본당 신부님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 신부님 안 계셔서 대답하는 게 그런데,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CMS 선택할 사람은 선택하고, 다른 곳에 기부할 사람은 기부하면 되고, 모든 걸 다 헤아려서 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아무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진의 답변은 오후 5:22에 시작해서 5:28에 끝났다.

오후 5:28 김선미(언론인)

확장 부분에서 왜 확장되는가 생각하면, 한끼를 누군가를 주는 것은 한끼를 마련하지 못한 분, 그렇다면 사회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금융복지도 궁극적으로 빈곤의 문제에 닿아있습니다.

청년빈곤에 주목하는 것은 중장년 빈곤으로 이어지고, 계층사다리를 탈 수 없기에 생애빈곤으로 고착되므로, 사회출발선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공동부엌의 파급효과 등, 청년빈곤에 주목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직접적으로 한끼 자기가 벌어서 먹지 하지 말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며 확장할 부분에 해당시켜야 하고요. 이른바 투 트랙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선미의 결론은 오후 5:28에 시작해서 5:29에 끝났다.

오후 5:29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CMS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본당후원과 CMS 후원을 분석 중인데, 본당후원이 줄어들 것인가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후 5:30 나봉균 신부(사회사목국장)

주교님께서 사목방문 가시면, 항상 사목국 신부들을 소개시키는데, 끝에 붙이시는 말이 "한끼100원도 책임지고 있습니다."입니다. 그만큼 주교님이 늘 강조하십니다. 본당에서 항상 그 정도 나오는 이유는 주교님이 늘 강조하기 때문인 거죠.

이는 주교와 사제단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관심 갖고 노력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처음에는 한끼100원에서 잔소리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뭔가 불만이 많으신가, 어떻게 채워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잔소리 안하시는 게 잘하셔서인지 (이진희 feat, 포기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게 10주년 맞이한 거 감사드립니다.

주교님 오셔서 한 말씀 하시는 거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본당이 중심이 되어 모금이 주욱 진행되었다면, 그건 주교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가고 모금액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모금이 되는 쪽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배분은 사회복지 기존의 시설들도 중요하지만 본당과의 연계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해낼 역량이 있고, 본당 사회복지도 십년이 넘었습니다. 본당에서 많은 부분이 가고 있으니, 본당으로 다시 흘러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윤택한 본당과 그렇지 않는 본당도 있으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창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굵은 한방. 뭔가 한방이 있으면서 나머지 곁들여서 갔으면 좋겠고, 이미 고민하시겠지만,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분사업 이렇게 하는게 맞나?' 그런데 이야기 들으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회사목국에서 소프트웨어적이라면, 그걸 가장 가톨릭사회복지적인 까리타스 정신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도와주는 게 더 교회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시설들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볼 수도 있지만 더욱 교회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외된 청년들 저번에도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든지, 세이브된 걸 한 방에 터트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주교님과 담판을 짓고. 그건 전담신부님이 말씀을 나누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밥차는 한계성은 분명히 있지만, 본당에서 한끼100원 주욱 가는데 본당에서 필요해서 밥차를 쓰려면 제약이 많고 실제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당 신부 입장에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진희 feat. 밥차만 가니까 그렇죠) 실제로 밥차가 가서 도우면 홍보효과가 있을 건데 그걸 좀 보완하며 가시면 앞으로 10년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봉균의 총평은 오후 5:30에 시작해서 5:36에 끝났다.

오후 5:36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오늘 주신 많은 내용들을 모아서 올해 안에 10년 의미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퍼포먼스가 있는데, 시간관계성 생략하고 전담신부님 이야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후 5:37 박제준 신부(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전담사제)

분야가 여러 가지여서 여러 분야에서 와 주셔서 본인과 관계없는 부분 지루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분들도 끝까지 계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 거듭될 수록 한끼100원이 더 탄탄해지고 발전해가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38 종료

부록.

가톨릭평화신문 2010년 5월 30일(1070호)

[종합]대전교구서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출범

하루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사랑 나눔 실천...
대전교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출범하고 20일 건물 축복식 가져

▲ 대전교구장 유흥식(왼쪽에서 여덟 번째) 교 등 내외 귀빈들이 전 교구 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작은 나눔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개소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한 끼에 100원씩 적립해 소외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대전교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가 20일 닻을 올렸다. 대전교구 사회사목국(국장 박진용 신부)은 이날 대전 홍도동 152의6 옛 홍도동 주민자치센터를 고쳐 지은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서 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했다.

한 끼 100원 나눔운동은 교구가 지난 2008년 교구 설정 60주년을 은혜롭게 보내며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시작한 작은 나눔 실천운동으로,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1313운동'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를 비롯해 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와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 등 사제단과 수도자, 평신도, 지역 기관장 등 800여 명이 함께했다.

유 주교는 축복식 강론을 통해 "한 끼 100원 나눔운동은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매 끼니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원씩 모으는 운동"이라며 "이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교구로 성장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딜랴 대주교는 격려사를 통해 "대전교구가 교구 설정 60주년을 기념하는 동안 영감을 얻어 시작한 한 끼 100원 나눔운동은 하느님 백성의 마음을 하느님 신비에로 다시금 이끈다"면서 "작은 사랑 실천을 통해 하느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영적 감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끼 100원 나눔운동은 지금까지 총 13억7300여 만원이 모금돼 이 중 3억 원이 천안 성모의 집 보금자리 마련에 쓰였고, 저금통 제작과 운영비 등에 6000만 원,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고쳐짓기와 비품 구입 등에 5000만 원이 각각 쓰였다.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가 들어선 홍도동 주민자치센터 구입비 3억6000만 원과 본부 고쳐짓기 비용 일부는 교구에서 부담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pbc.co.kr

타임라인 Timeline 2018년 5월 25일(금) 오후 3시~

3:00 강절로(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행사시작 사회
3:00 박제준 토마(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전담사제) 주님의 기도와 인사말
3:11 서은덕 미카엘라(문화기획자) 막간공연으로 아코디언 연주
3:22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소개 프리젠테이션

스몰토크 시작

3:34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첫 발표자로 오만진 교수를 소개

스몰토크 – 패널 발표

3:36 오만진(충남대 명예교수) 나눔운동 정신 소개
3:48 남 수산나 수녀(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성모의 마을 원장) 지원받은 사례와 소감 공유
3:54 조동신(금융복지상담사) 상담사례 발표
4:08 최해경(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분공모 사업 등 소개
4:16 김선미(언론인) 청년빈곤 문제에 대한 가톨릭 복지의 적극적 개입 필요

스몰토크 – 자유로운 질문과 발표

4:26 유창연 사도요한 신부(대전교구 장애인사목부 전담) 2가지 질문
4:28 신동혁(대전교구 사회사목국 부장) 한끼100원 최초로 시작한 담당자 소회
4:35 이명주 루시아(대전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당의 적극적 참여사례 공유
4:41 여경순(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원받은 사업 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4:47 이경미 아나스타시아 수녀(서천군노인복지관장) 지원받은 사업 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4:54 강영희(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 글 낭독(by 이진희) 5년 후 미래 향한 대안적 투자 제안
4:58 임향이(대전자모원장) 지원받은 사업 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5:05 김현주 안나(장애인 보호작업장 '느루' 원장) 금융복지상담사 2기 과정 교육생의 경험 공
5:09 허웅 프란치스코 신부(전, 몽골 한올 성당 주임) 몽골 선교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표현
5:14 김명희 세실리아(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장) 장발장 은행과 같은 사업 검토 제안
5:18 최해경(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질문과 의견들에 대한 답변
5:22 오만진(충남대 명예교수) 유창연 신부의 질문 중 첫 번째 CMS 모금방식에 대해 답변
5:28 김선미(언론인) 청년 빈곤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재차 강조
5:30 나봉균 신부(사회사목국장) 스몰토크에 대한 총평
5:36 사회자 이진희(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예상보다 늦어져 마지막 퍼포먼스 생략 공지 및 마무리
5:37 박제준 신부(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전담사제) 마지막 인사
5:38 행사 종료

한끼100원나눔운동 10년
Small Talk
한끼100원나눔운동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small talk'
2018.5.25(금)
시간 15:00
장소 대철회관 1층
대상 패널 5~6명과 교구민
Interview
한끼100원나눔운동
10년 기념 100인의 인터뷰
2018.5월~8월
방법 연락드리고 찾아갑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ass
한끼100원나눔운동
10년 감사미사
2018.11.17토
시간 15:00
장소 괴정동 KT연수원
Newsletter
한끼100원나눔운동
10년 기념 소식지
2018.1월~12월(홀수달)
내용 기념사진, 인터뷰 내용 등
방법 본당 주보와 함께 배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문의 042.636.1331